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MY SIDE OF THE DIAMOND

가제 : 내가 본 다이아몬드

저자 : Sally Gardner

출판사: Hot Key Books

발행일: 2017년 10월 5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카네기 메달, 코스타 도서상, 네슬레 어린이 도서상을 휩쓴 영국의 대표적인 아동작가가 완성한 또 한 편의 놀랍고 환상적인 **SF** 소설
- * 우정과 상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의 힘을 작가 특유의 기발한 상상력과 스토리텔링 기술로 그려낸 흥미롭고 매력적인 이야기

열다섯 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베스트셀러 작가 대열에 오를 정도로 엄청난 재능을 가진 친구가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렸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두 눈으로 그 믿기 힘든 장면을 다 지켜본 재스민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도 않고 믿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금세 깨닫고 그냥 입을 다물기로 작정한다. 그리고 모두가 원하는 거짓된 결론 대신 직접 친구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찾아내기로 결심한다. 대체 베키는 왜 런던에서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에서 뛰어 내렸을까? 베키와 함께 이 무모한 일을 벌인 이카루스는 누구일까? 특별한 상상력을 지닌 한 소년의 희망과 절망에 관한 이야기, 『7구역 소년(원제: MAGGOT MOON)』으로 코스타 도서상과 카네기 메달을 모두 수상한 작가는 수수께끼 같은 소녀 베키와 그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유일한 친구 재스민을 통해 또 한 번 우리를 현실과 상상의 세계가 만나는 매력적인 경계로 이끈다.

재스민이 베키를 처음 만난 건 열한 살 때였다. 엄마가 유명 잡지사에서 일하고 아빠는 건축가라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한 집에서 사는 베키는 공립 교육을 중시하는 부모님의 확고한 의지로 사립학교 대신 재스민처럼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집 아이들이 모여 있는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처음부터 베키에게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 학급 아이들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에만 매진하는 그룹과 재스민과 같이 그저 설렁설렁 노는 ‘예술가 타입’으로 크게 나뉘었는데 베키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다. 아무하고도 말을 나누지 않고 회사원들이나 가지고 다닐 법한 몰스킨 노트를 온종일 손에 쥐고 깨알 같은 글씨로 글을 쓰고 또 쓰는 특이한 취미를 가진 베키를 아이들은

‘몰스킨’이라 불렀다. 재스민은 이상하게 신경을 거슬리는 베키를 한참 눈 여겨 보다가, 어느 날 운동장 한쪽 계단에서도 그 노트를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상한 충동에 사로잡혀 노트를 획 빼앗아버렸다. 그런데 베키의 반응은 아주 뜻밖이었다. 그저 재스민의 얼굴을 뺨히 쳐다볼 뿐, 돌려달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더니 그대로 교실로 들어가버렸다. 선생님께 이르겠거니 생각했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집에 베키의 노트를 가져간 재스민은 호기심에 내용을 읽어보다가, 난생 처음 글에 완전히 푹 빠지는 놀라운 경험을 한다. 인간과 비슷하지만 인간이 아닌 존재들, 현실 같지만 현실이 아닌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단숨에 읽어 내리고 깜짝 놀란 재스민은 다음 날 베키에게 노트를 돌려주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베키는 재스민의 권유로 여러 권의 노트에 그 동안 써온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재스민의 예상대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는다.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는 독자들의 요청이 빗발치고 베키의 엄마까지 나서서 글을 더 써보라고 딸을 재촉했다. 하지만 재스민은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이나, 자신의 글이 책으로 나오고 심지어 영화제작 계약까지 체결된 후에도 베키가 그런 일에는 별 관심도 없을뿐더러 되려 싫어하는 모습을 보고 더 놀랐다. 급기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재스민이 엄마에게 원고를 넘긴 사실을 알게 된 베키는 눈에 띄게 재스민을 멀리하기 시작하더니, 방학 내내 연락까지 두절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베키는 분명 전과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재스민은 베키가 이카루스라는 이상한 소년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데 뱀파이어처럼 나이를 먹지 않는 아이, 어딘가 으스스한 구석이 있는 이카루스와 함께 베키가 빌딩에 올라가 그대로 점프하는 놀라운 일이 베키의 눈 앞에서 벌어진 것이다. 대체 둘은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재스민이 본 건 사실일까? 그 날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베키를 찾아 나선 재스민은 이 충격적인 사건에 훨씬 더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저자 소개>

샬리 가드너(Sally Gardner)는 여러 차례 소설상을 수상한 소설가로 현재까지 발표한 작품들이 스물두 가지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됐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데뷔소설 『코리앤더(원제: I, CORIANDER)』로 2005년 네슬레 아동도서상(Nestle Children's Book Prize)을 수상했고 『7구역 소년(원제: MAGGOT MOON)』으로 코스타 아동도서상(Costa Children's Book Prize)과 카네기 메달을 수상했다. 평단의 큰 호평을 받은 『THE DOUBLE SHADOW』도 카네기 메달 후보로 선정되었으며 『THE RED NECKLACE』는 2007년 가디언 도서상(Guardian Book Prize) 결승 후보에 올랐다.

제목 : THE YOUNG MAGICIANS AND THE THIEVES' ALMANAC

가제 : 신입 마술사와 도둑이 가진 이상한 책

저자 : Nick Mohammed

출판사: Puffin

발행일: 2017년 2월 2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영국의 재능 넘치는 영화배우, 코미디언 겸 마술사가 처음으로 완성한 미스터리 어드벤처 소설
- * 영화 '나우 유 씨 미'를 연상케 하는 마술사 클럽, 네 사람의 마술사가 은행 털이범의 비밀을 풀러 나서면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모험과 신기한 마술의 이야기

1905년에 설립된 마술협회는 마술 좀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꼭 가입하고 싶은 그런 곳이다. 진짜 유능한 마법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자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타고난 재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능력을 예리하게 다듬고 키울 기회를 협회에서 얻을 수 있다. 이제 막 자신의 마술사 재능을 깨달은 네 사람이 같은 목표로 한 팀이 되었다. 모두에게 인정 받는 마술사가 되는 것, 그 꿈을 위해 달려가는 유쾌하고 열정적인 네 친구는 어딘가 베일에 휩싸인 마술사 집단인 마술협회에 들어가기 위해 까다로운 문제를 함께 해결하러 나선다. 청소년 시절부터 실제 마술사로 활동해온 저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마술의 놀라운 비밀과 마술사들의 일상생활까지, 흥미롭고 다채로운 이야기를 이 책에서 생생하게 풀어 놓는다. 개성도, 주특기도 제각기 다른 네 친구의 짜릿하고 미스터리한 모험이 시작된다.

열세 살이 된 잭 해리슨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손재주를 처음 깨달은 순간은 클라리넷을 배우다가 갑자기 찾아왔다. 아무리 연습해도 늘지 않는 연주실력 대신, 신문지에 꽤 기다란 이 악기를 돌돌 말아서 눈 앞에서 없애버리는 일이 훨씬 더 쉽다는 사실을 어쩌다 깨달은 것이다.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듯이 잭에게 무슨 신기한 능력이라도 있는 걸까? 그것보다는, 남들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민첩한 손동작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특성을 교묘하게 잘 이용할 줄 아는 재능이 있다는 말이 더 어울릴 것이다. 여러 조각으로 나눌 수 있는 클라리넷을 분리해서 입을 대는 부분과 끝부분만 밖으로 나오도록 포장한 다음 중간 부분은 미리 준비한 계획대로 없애버리는 일쯤 잭에게는 누워서 식은 죽 먹기였다. 잭은 이 놀라운 손재주를 살려 원하기만 하면 누구의 주머니에서 어떤 물건이든 슬쩍 빼낼 수 있는 탁월한 소매치기가 된다. 훔친 물건을 도로 제자리에 넣어놓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소매치기와는 다르지만. 자신의 특별함을 깨달은 잭은 제대로 된 마술사가 되기로 하고, 10월의 어느 오후, 협회가 위치한 건물로 서둘러 찾아간다. 그런데 같은 시각, 같은 곳으로 향하는 또 한 명의 소년이 있다. 저 멀리서도 한 눈에 들어올 정도로 다리가 엄청나게 긴 조니였다.

에스컬레이터를 한 번에 세 칸씩 별 힘도 들이지 않고 성큼성큼 올라갈 수 있는 조니는 사실

잭과 가장 절친한 친구다. 마술협회에서도 전설적인 인물로 알려진 할아버지의 재능을 물려 받은 것이 분명한 조니는 과학적인 지식도 모르는 것이 없는 수재다. 덕분에 마술과 과학의 원리를 조합해서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기발한 마술을 부리는 능력이 있었는데, 조니는 그 중에서도 폭발물에 유독 관심이 많았다. 잭이 보기에 학교 전체는 물론 우주 전체에서 조니보다 키가 큰 사람이 없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외모로나 재능면에서나 특별한 이 손녀도 그 날, 잭 바로 위에서 마술협회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하철 역에서 조니가 모르고 밀치고 지나간 한 소녀가 있었으니, 그녀 역시 목적지가 같았다. 잉글랜드 북쪽에서 온 아주 평범한 외모의 소유자, 하지만 말을 걸어보면 특정 지역에 형성된 호수 이름을 줄줄이 다 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술의 여러 갈래 중에서도 ‘의식 체험’ 분야에 탁월한 기술을 보유한 소녀, 소피였다.

소피의 주특기는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최면술’이었다. 그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학교 선생님에게 자신을 제외한 반 친구 전체가 사실은 사람이 아닌 해파리라는 생각을 주입시킨 다음 학교를 유유히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였다. 전철역에서 조니가 소피를 툭 치고 지나갈 때만 해도 얼마 도 서로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되리란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했으리라. 온갖 잡다한 지식을 다 아는 박학다식한 최면술의 대가도 발걸음은 마술협회로 향하고 있었다. 또 한 사람, 말수도 적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수줍음 많은 소년, 알렉스도 빼 놓을 수 없다. 사회성이라고 전혀 없는 이 존재감 없는 소년은 보는 눈이 아무도 없을 때 카드 한 벌로 놀라운 마술을 똑딱 해내는 기술이 있었다. 카드를 조작하는 그 손은 종이나 물건을 다루는 것보다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을 대하듯 섬세하고 예리했다. 겨우 열두 살밖에 안 된 소년의 솜씨라고는 믿을 수 없는 현란한 손동작을 아직 알렉스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 역시 마음 깊이 품어온 꿈, 위대한 마술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세 사람과 같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렇게 모인 네 사람의 마술사는 마술협회가 마련한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마침 잉글랜드 은행을 홀랑 털어버린 대범하고 영리한 은행강도가 나타나고, 네 사람은 경찰보다 먼저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풀기 위해 나선다. 강도의 행각처럼 보이지만 누군가 마술 기법을 쓴 흔적도 드러나는 가운데, 비밀스러운 기술을 보유한 마술사가 사건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은 점점 더 복잡하게 흘러간다. 과연 네 사람은 이 까다로운 과제를 해내고 진짜 마술사가 될 수 있을까?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에 지극히 현실적인 일상의 모습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들이 잘 조합된 흥미진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닉 모하메드(Nick Mohammed)는 떠오르는 신인 영화배우, 코미디언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5년부터 영국 브래드포드 마술사협회에 주니어 멤버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18년 동안 마술에 푹 빠져 살았다. 영화 ‘ABSOLUTELY FABULOUS: THE MOVIE’, ‘브리짓존스의 베이비’에 출연하였으며 CBBC(아동채널) 프로그램 ‘Hank Zipzer’에도 고정 출연 중이다.